

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 단계에서 광역교통기금이 무산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<보도 내용 (머니투데이, 11.15) >

- ◆ “교통지옥” 신도시 30조 광역교통기금 무산됐다.
 - 신도시 ‘교통난’ 해소를 위해 검토했던 ‘광역교통대책기금’이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 단계에서 무산
 - ‘광역교통기금’ 무산으로 신도시 등 교통난 해결이 더 어려워질 듯

-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 단계에서 광역교통기금이 무산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강희업)는 신도시 등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으로,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.
 - 아울러,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조기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검토하는 등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주열 (044-201-5045)
		담당자	사무관	권호정 (044-201-5056)